김값 폭락, 가공업체 폐업 속출

해남·진도 등 100여곳 '경영난' 허덕

출하량 절반 가량 줄어 물김값은 급등

해남·진도·신안 등 전남 서남해안 김 주산지에서 '물 김'값은 대폭 오른 반면 '마른 김'가격은 폭락해 김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년 이맘때 6만원선에 거래되던 60㎏들이 물김 한자루가 올해는 7만5천원~9만5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반면 지난해 속당(100장) 4천500~5천원에 거래되던 마른 김은 3천 2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지를 맞출 수 없어 가동을 중단하는 물김 가공공장이 늘고 있다.

해남지역 112개 가공업체 가운데 60여 곳이 최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고, 진도지역 업체들도 30%가량이 휴업에 들어갔다.

또 신안지역도 20여 곳이 가동을 중단하는 등 전남 지역 300여 가공업체중 100여곳이 가동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가공업체들은 60㎏들이 물김 한 자루를 마른 김으로 가공해 평균 25속을 생산할 경우 인건비와 기름값을 감안하면 자루당 많게는 2만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가동을 중단한 가공공장이 늘고 있는데도 물김 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높은 수온으로 김작황이 나빠 지난해 이맘때보다 출하량이 최고 절반 가량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남에서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환영(52·현산면 두모리)씨는 "가격형성이 안돼도 공장을 쉴 수 없어 적자를 감수하면서 가동하고 있다"며 "명절이 지나야 가격이 다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올 김생산 목표는 6천162만7천속으로 13일 현재 1천192만2천속을 생산, 계획대비 19.3%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열기

보성경찰서는 최근 보성초등학교 소강당에서 3학년생 113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보성경찰은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지역 학교를 돌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펼치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여수 오동도 '명물' 음악분수

'워터 스크린'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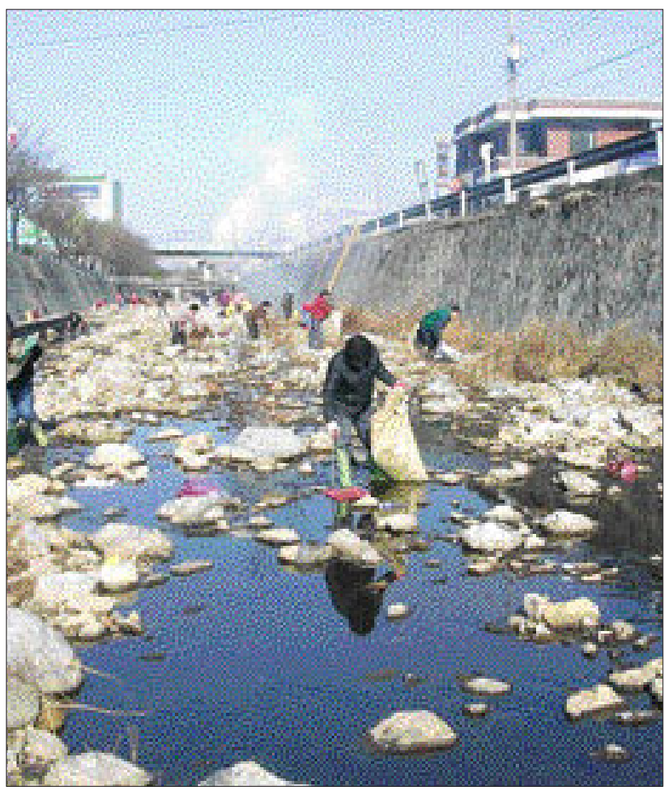
여수 오동도의 명물로 자리잡은 음악분수에 레이저 빔을 활용한 워터 스크린(Water Screen)이 설치된다.

여수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레이저 영상쇼 설치를 위한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발표회를 갖고 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워터 스크린은 가로 50m, 높이 25m 규모로 1대의 풀 컬러 레이저와 녹색레이저 2대가 설치된다.

시는 이달 말 최종 용역을 마치고 올 상반기내 워터 스크린을 설치, 하루 30분 정도 여수지역 관광 명소 및 시정 홍보물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시는 워터 스크린이 2012세계박람회 유치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 체류형 관광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여수박람회 실사 대비 환경정비

여수시민들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를 앞두고 도심환경정비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주민 100여명이 중흥천 청결활동에 나서 30여t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나주시 '고무줄 보육행정' 빈축

대형 어린이집 반발에 넉달만에 또 증축허가 내줘

나주시가 기존 보육시설 등의 반발에 따라 초대형 어린이집의 정원을 두차례나 조정해 '고무줄 보육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2월말 대호동에 연면적 396㎡ 규모의 S 어린이집 건축허가를 내준 데 이어 4개월 뒤 1천566㎡로 증축을 허가했다.

〈광주일보 1월17일자 12면 보도〉

이는 평균 60평인 나주지역 45개 보육시설의 4배 규모로 최대 250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다.

이같은 초대형 어린이 집 개원에 대해 기존 보육시설협회가 강력히 반발하자 시는 최초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정원을 60명으로 조정, 지난 1월 인가를 내줬다.

그러자 이번에는 S어린이집 사업자가 당초 허가대로 250명 인가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다시 150명으로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250명 정원으로 건축허가가 난 만큼 민원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신규 보육수요가 없는데다 기존 협회가 반발하고 있어 정원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나주배 대만시장 공략

200만달러 수출 계약

나주배원협(조합장 이상계)이 대만시장 개척에 나서 200만달러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나주배원협은 유통담당자와 임직원으로 구성된 수출시장 개척단을 조직하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만의 주요 도매시장 수입 바이어들과 상담을 벌였다.

그 결과 대만 수입바이어 4개 업체와 원황·황금·신고 배 2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나주 배는 50년 전부터 대만에 수출돼 왔으나 그동안 무역 규제 등으로 주춤하다 올해부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나주 배 자체 브랜드를 개발, 적극적으로 대만시장 공략에 나섰다.

나주배원협은 저가의 칠레, 중국산 배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현지 홍보 판촉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나주배 우수성을 알리고 수출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계 조합장은 "나주는 기후·토질 등이 배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대만 바이어들이 호감을 갖는 주산지이다"며 "올해 200만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귀농자 유치 조례제정

강진군 전담창구 개설

강진군이 귀농자 유치를 위해 전국귀농운동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례도 제정키로 했다.

강진군은 13일 군청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귀농자 강진군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귀농자 조기정착을 유도해 농촌 인구 증대 등의 부대효과 등을 거두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군은 귀농 교육훈련비는 물론 주택수리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귀농자의 강진지역 유치 및 지원 등을 위한 귀농자 전담 창구도 설치된다.

특히 귀농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도 다음달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광산구 '금연클리닉' 인기

50인 이상 업체·학교 대상 금연상담실 운영

광산구가 50인 이상 사업체나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이동 금연클리닉'이 인기를 끌고 있다.

광산구는 보건소내에 있는 금연클리닉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흡연자를 직접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는 보건소내 금연상담사 4명을 전담운영 요원으로 지정하고 사업장 또는 학교를 찾아가 금연상담 및 약물요법과 행동요법을 병행, 보다 쉽게 금연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광산구 이동 금연클리닉은 6개월 동안 혈압과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상담 및 건강상담, 금연교육은 물론 금연보조제를 무료 제공한다.

지금까지 금호타이어와 호남대학교, 710전경대 등 12개소 328명에게 금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중 31%인 101명이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했다.

이같은 효과가 주민들 사이에 입 소문으로 퍼지면서 이동 금연클리닉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장성 백암산 고로쇠

하루 2,000ℓ씩 채취

백암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되고 있다.

장성군 백양·남창 고로쇠 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백암산 일대에서 고로쇠를 채취·판매하고 있다. 백암산 고로쇠는 본격적인 성수기를 맞아 북하면 신성리 남창마을과 약수리 가인마을 등 2개 마을에서 24농가가 하루 2천ℓ 가량 채취하고 있다. 판매가격은 18ℓ 한통에 4만5천원이며 택배도 가능하다.

백암산 일대는 아침·저녁 온도차가 커 이곳에서 채취된 고로쇠 수액은 칼슘 등 영양소와 미네랄을 다량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맛과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061)392-7790

/장성=고재빈기자 jbgo@